

“역사적 죄인” 박승춘 전보훈처장 무혐의 질타

국감 옛새째 ... 여야,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성 설전 심재철 비인가 재정정보유출 사건 놓고 정면 충돌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옛새째인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한국재정정보위원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돌,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후 재개한 감사에서 민주당 윤우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

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경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차등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의 차등 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문제도

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80%가 넘는 등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도 공직자 윤리위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고윤진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며 “일부 항목에 무혐의 처분

이 나왔다고 역사적인 범죄 행위들 앞에 떳떳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내부 조사를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보훈처장은 재조사하겠다고 추가로 경찰을 불러들였다”며 무리한 수사의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중앙회 국감에선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 금연 정책이 각각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방위는 서해 백령도에 있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 시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찾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장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에 입회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제위 국감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임동욱 기자 tuim@

국감 현장

“탈원전 세계 추세” vs “한전 적자 원인”

한전 대상 산업위 국감... 여야 또 탈원전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와 관련해 현재를 말하고 민주당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장 먹기 좋다고 잘 못 먹다가는 탈 날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승전 탈원전” 이야기 하다가 월성 원전 1호기는 발전단가가 122.82원으로 다른 원전의 평균단가(60.68원)보다 높아 발전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서 폐쇄한 것이고,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부실시공 때문에 고지나라 그런 것”이라고 했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전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킨다고 주장 하지만 한전은 최근 10년간만 보더라도 2008~2011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다”며 “올해 상반기 순손실도 보수 기

간이 길어져서 원전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소를 돌리니 전력 구입비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여당 의원이 ‘한국당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여당은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미래의 재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례서는 안 된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짓고 있던 원전을 한순간에 무산시키는 것이 점진적인가”고 따졌다.

김규환 의원은 “연료 가격이 과거와 같이 오르면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사 오는 전력 생산단가는 2030년까지 200% 이상 폭등할 것”이라며 “한전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이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당 박대훈 의원은 “한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도 배당금 잔치를 벌였고 연말에도 성과급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 재정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3월 이사회를 거쳐 5천72억원의 주주배당금 지급을 결정했고, 올해 말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802만5천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국회 6개 특위 구성 합의

원내대표 회동... 오늘 본회의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한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6개 특위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과 관련해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또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불채택 때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두는 것에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의

에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비상설 특위 6개 구성에도 합의, 17일까지 각 당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려진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개특위의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명씩 가져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몫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김병준, 한국당 대표 취임 첫 광주 방문

기자 간담회·오월 묘역 참배·조선대 특강 등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7일 광주를 찾아 지역기자 오찬간담회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과 한국당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조선대로 이동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 특강을 통해 김 위원장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난 등 고충을 듣고 질

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와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 등 TK(대구경북)와 PK(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했다. 보수의 불모지인 광주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